

그들은 왜 자랑스러운가?



신세철의
쉬운 경제

우리 사회에는 자랑스러운 것은 커녕 수치스럽기만 한 지도층 유력인사들이 수도룩한 반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랑스러운 한국인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다. 아직까지는 여기 쓰여 있는 이들을 직접 만나는 행운이 없었지만, 언젠가는 만나서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 보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

기증자 손창근 선생

아무 조건 없이 서울 남산 면적의 2배나 되는 땅을 국가에 기증한 이가 있다. 경기도 용인 미리내 성지 옆 시공간 일대 임야를 숲으로 보전하기 위한 용기다. 기증자는 오랫동안 스스로 가꾸온 "숲을 개발하지는 끈질긴 압력과 유혹을 뿌리치기 위하여 나라에 기증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라고 한다. 산림청은 그 숲의 이름을 기증자 선친의 호를 따 "석포숲"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 바로 얼마 전, 도심지역에 있는 남아있는 자투리땅마다 고층건물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한심한 뉴스가 무엇인가 답답하게 할 때였다. 숨막히게 늘어선 빌딩 숲에 조그만 삼지공원이라도 조성하여 사람들이 숨 쉴 작은 완충지대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환경을 오염시키는 인사들을 생각할수록 석포숲 기증자의 용기는 더 빛난다.

누구도 천당이나 극락으로 가져갈 수 없기에 그 땅은 우리들의 자손 대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파헤쳐 지고 찢겨 투기의 대상이 되는 대신에 신선한 산소를 뿜어내며 사람들을 포근하게 감싸는 휴식공간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기증자 손창근 선생의 우람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바둑의 품격" 바둑 기사 조한승

2009년 바둑 기사 조한승이 제대 직후 국수전 우승컵을 거머쥐자, 상금 전액을 그가 근무하던 최전방 수색부대와 유니세프에 희사하였다. 세계를 제패하는 바둑 기사들 거의 대부분이 10대나 20대 초반임을 생각할 때, 프로 기사로서 두뇌활동이 가장 왕성할 시기에 군에 입대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군에 입대하면서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 같다. 2%의 부족한 투자를 채워주겠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제대 직후 영광스러운 국수 타이틀을 획득함으로써 군 복무가 보다 강인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셈이었다.

마침 그때는 "비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6명 중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의장을 비롯하여 모두가 병역 미필자 내지 기피자다. "라는 전직 고위관료의 신문칼럼을 읽고 씩씩할 때였다. 직접 군대 생활을 하지 않고도 장군이 되거나 전투 경험 없이도 사령관이 될 수 있는 독재국가, 왕조국가도 아닌 자유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현상이었다. 그 글에는 우리나라에서 의무를 다하고, 깨끗하게 살면 출세하기 어렵다는 자괴감이 깊이 배어있었다. 그 글에는 상류층(?)에게 병역기피는 하나의 장식이고 탈법과 변칙, 탈세, 논문표절 같은 일들로 얼룩져있음을 개탄하고 있었다.

조한승의 바둑은 잔수보다는 바둑판 전체를 그리고 바둑의 기본 이치를 존중하기에 동료 기사들은 그에게 "바둑의 품격"이라는 칭호를 보낸다고 한다. 그는 2008년에도 중국리그 우승, 준우승 상금 모두를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하고, 2012년에는 중국리그 특별 보너스 전액을 리그가 속한 지역 가난한 주민에게 기부하기도 하였다. 그가 품격 있는

바둑을 두는 까닭은 아마도 넘치는 인간애와 함께 실천적 행동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그 후에 그 어려운 국수 타이틀을 3연속 제패하였다는 기사가 반가웠다. 아마도 마음을 크게 하니 세상 이치와 같다는 바둑의 수도 잘 보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2018년에도 바둑 최고수들이 겨루는 입신최강전에서 우승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있다.

오상봉 선생과 양학선

'도마의 신' 이 하늘로 솟구쳐 허공에서 몇 바퀴 돌다가 흐트러짐 없이 착지하자 메달 색깔을 닦는 외국 선수들까지 감탄하며 손뼉을 치는 런던올림픽 장면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누구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고난도 제조기술을 선보여, 국제제조협회에 '양학선기술'로 등록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날이 있기까지는 그의 자질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도마 선수로 이끈 중학교 은사 오상봉 선생의 변함없는 애정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우뚝 선 것은 스승의 사랑과 제자의 존경심이 어우러졌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오늘날 학원에는 스승은 어디로 가고 제자도 없는 그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장소로 변해가고 있음을 가끔 느끼게 된다. 교사가 학생을 한낱 고객으로 여기기도 하고, 학부모 심지어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는 상상하기도 싫은 사태가 벌어지는 시대상황에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인연이 자랑스럽다. 양학선 선수가 더 겸손한 자세로 힘찬 날개를 다시 펼치기를 기대한다.

세상에는 이들 외에도 자랑스럽고 본받을 인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 지저분한 자들의 그 부끄러운 행각 보도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도 자랑스러운 이들의 숨어 있는 일화가 끊임없이 발굴되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현대차, 영국 첼시 축구클럽 후원

현대자동차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소속의 명문 축구클럽 '첼시 FC'와 글로벌 자동차 파트너 후원계약을 체결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계약을 통해 오는 8월 시작하는 2018/2019 시즌부터 2021/2022 시즌까지 4년간 선수단 유니폼 소매, 경기장 내 광고판 등에 현대차 로고를 적용하게 된다. 첼시 FC 소속 선수인 다비드 루이스, 올리비에 지루, 티에무에 바카요코(왼쪽부터)가 현대차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효성그룹, 육군1군단에 위문금·위문품 전달

효성그룹은 육군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효성이 1군단에 전달한 지원 액수는 총 4000만원 상당이다. 위문금 1000만원·위문품 400만원·독서카페 지원금 26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안영호 육군1군단장(왼쪽 세번째)과 효성 최현태 전무(왼쪽 네번째)가 자리에 참석했다. /효성그룹



우리은행, CJ오쇼핑과 협력기업 상생지원 MOU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우리은행-CJ오쇼핑, 협력기업 상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체결됐다. 이동연 우리은행 부행장(오른쪽)이 허민회 CJ오쇼핑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투표 전에 꼭! 공약 확인해야



기지수첩
최신웅
(정치사회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5월 31일부터 13일 간 전국에서 9300여 명의 후보자들이 밤낮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국민들을 직접 만났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들 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투표율 20.4%를 기록하며 기대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물론, 아직도 투표에 소극적인 이들이 주변에 많지만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투표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할 만큼 이제 투표는 국민들의 당연한 주권 행위로 자리잡은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투표를 많이 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번 선거도 어김없이 선거 막판에 '여배우 스캔들', '이부망천' 발언 등이 선거 판세를 흔들 큰 변수로 작용하면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보다는 막말과 자질시비로 초점이 옮겨졌다. 문제는 여야 정당들이 이런 이슈를 활용해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정책과 공약에 따라 지역 일꾼을 선택하려는 국민들의 신중한 결정을 방해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는 사·도지사 선출부터 지방의원 선출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선거다. 투입되는 예산도 1조원이 넘는다. 그만큼 우리들의 한 표가 얼마

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2280개 선거구에서 4016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며, 12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그동안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납세 등 정보와 정책·공약이 담겨 있는 선거공보를 가정에 보냈다. 혹시라도 이 공보를 보지 못했다면 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우리동네 공약지도', 유권자 희망공약, 정당의 10대 공약, 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도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투표 하러 가기 전에 꼭 우리 지역 일꾼이 약속한 내용을 확인해본 후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면 좋을 것이다.

/grandtrust@metroseoul.co.kr

대한항공, 신입 객실승무원 200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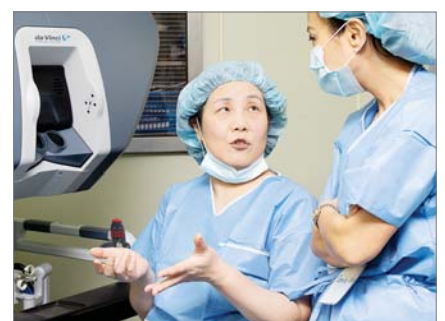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사의 일원으로 서기내 안전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신입 객실승무원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12~22일 오후 6시까지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지원 자격은 기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에 한한다. 교정시

력 1.0 이상이며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인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후 1차 면접, 2차 면접 및 영어구술 테스트, 체력/수영 테스트 및 3차 면접, 건강검진 순이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6월 28일(목) 채용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경연우 기자 yw964@

이대목동병원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메카로

로봇수술센터 문혜성 산부인과 교수 국내외 전문의들에 노하우 전수



문혜성 에피센터장(왼쪽)이 미국 의료진에게 수술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이화의료원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이대목동병원으로 국내외 산부인과 로봇수술 전문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다.

이대목동병원은 국내외 산부인과 로봇수술 전문의들이 로봇수술센터 문혜성 산부인과 교수의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고 12일 밝혔다.

문 교수는 지난 1월 다빈치 로봇을 개발하고 수술을 보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튜이티브컴퍼니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한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에피센터 멘토 자격을 부여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은 에피센터(Epicenter)를 개설해 문 교수를 에피센터장으로 지정됐다.

센터 개설 후 문 교수는 로봇수술 기기를 배우기 원하는 임상의를 대상으로 수술 참관과 임상 강의를 통해 수술 기법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문 센터장은 최근까지 620여건이 넘는 로봇수술을 집도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360여 건이 배꼽만 뚫어 수술하는 싱글사이트 로봇수술로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21-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 397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 0069호

인사

◆중소기업중앙회 ◇부서장 전보 △사회공헌부장 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사무국장 김기훈

◆CBS ◇승진 △기획조정실장 박종률 △경영본부장 이경범 △미디어본부 노설위원실장 문영기 △미디어본부 디지털기술국장 정용선 △선교TV본부 TV 제작국장 강인석 △마케팅본부 공연기획센터장 이덕우 △전북방송본부장 이열범 △강원방송본부장 하근찬 △경남방송본부장 김종욱 △포항방송본부장 조중의

◆호서대 △교목실장 유은걸 △기획처장 정성희 △재무처장 조대진

부음

▲강광인(롯데물산 전 대표이사) 씨 별세, 규책·규진·규용 씨 부친상 =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장지 강원도 춘천시 가평공원묘원, 02-3410-3151.

▲정서현(부산일보 전 편집국장)씨 별세, 인표·인재·지민씨 부친상 = 11일 오전, 부산 사하구 괴정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14일 오전, 051-293-4382.